

해외출장(호주 시드니)보고서

부서 :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책임 및 자료제공 : 민현석
작성일 : 2018년 12월 일
게시요망일 : 2019년 월 일

시드니 리빙 뮤지엄의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1970년대까지 호주에는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법·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문화유산이 개인 또는 지역사회단체의 손에 의하여 보존·관리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 접어들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도시개발로 많은 문화유산이 사라졌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정부차원의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다. 결국 호주정부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주택과 장소를 관리·보존·규제하는 내용의 역사적 주택법령(Historic Houses Act, 1980)을 제정하고, 역사적 주택(Historic House)의 유지·관리·경영을 담당하는 역사적 주택신탁(Historic Houses Trust)을 발족하였다.

1980년 역사적 주택신탁은 엘리자베스 베이 하우스 트러스트(Elizabeth Bay House Trust)가 관리하고 있던 엘리자베스 베이 주택(Elizabeth Bay House)과 자연공원 및 야생동물 법령(National Parks and Wildlife Act)에 따라 관리되고 있던 보클루즈 주택(Vaucluse House)을 인수하여 최초의 업무를 시작하였다. 1984년 역사적 주택신탁은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관련자료를 수집·소장하는 한편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캐롤라인 심슨 도서관 및 연구소(Caroline Simpson Library & Research Collection)를 설립하였다. 이후 역사적 주택신탁은 엘리자베스 농장(Elizabeth Farm, 1982), 메루갈(Meroogal, 1985), 로즈힐 주택(Rouse Hill House, 1987) 등을 지속적으로 매입하였다.

역사적 주택신탁은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매입 이외에도 기부나 대토의 방법으로 정부차원에서 보존·관리가 필요한 문화유산을 확보해 나갔다. 로즈 시들러 주택(Rose Seidler House, 1988)의 경우 소유주인 건축가 해리 시들러(Harry Seidler)의 기부로 역사적 주택신탁에서 관리하게 되었으며, 시드니 박물관(Museum of Sydney, 1995)의 경우, 도시개발과정에서 최초 총독관저의 흔적이 발굴되면서 해당 부지를 주변의 공공부지와 대토하여 확보하였다.

1990년대에는 하이드 파크 막사 박물관(Hyde Park Barracks Museum, 1991), 사법 및 경찰 박물관(Justice & Police Museum, 1991), 수산나 플레이스 박물관(Susannah Place Museum, 1993), 조폐국(The Mint, 1997) 등 시드니 도심부에 위치한 문화유산을 역사적 주택신탁이 추가로 인수하여 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현재 역사적 주택신탁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 관련 시설은 총 12개이다. 2013년 역사적 주택신탁은 현재와 미래세대의 역할을 규명하고

이들 세대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드니 리빙 뮤지엄(Sydney Living Museums)'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리빙 히스토리의 개념을 바탕으로 관련 문화유산의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한편 문화유산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시드니 리빙 뮤지엄은 1개의 본부와 1개의 연구소, 10개의 박물관으로 리노베이션하여 운영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부에서는 시드니 리빙 뮤지엄의 전반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 시드니 리빙 뮤지엄이 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홍보·교육하는 한편 시드니 리빙 뮤지엄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캐롤라인 심슨 도서관 및 연구소에서는 건축도면 및 건축부재, 정원·인테리어·가구 등의 디자인 자료는 물론 편지·그림·사진·책·잡지 등 관련 인물에 관한 소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를 수집·소장하는 한편 관련 자료의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위한 심도 높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시드니 리빙 뮤지엄 본부와 캐롤라인 심슨 도서관 및 연구소는 과거 조폐국이 사용하였던 건물에 함께 입주하여 있다.

시드니 리빙 뮤지엄이 관리하고 있는 10개의 박물관은 도심부에 위치한 4개의 공공시설과 시드니 교외에 산재하여 있는 6개의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도심부에 위치한 시드니 박물관, 하이드 파크 막사 박물관, 수산나 플레이스 박물관, 사법 및 경찰박물관에서는 시드니의 개괄적인 역사, 19세기초반 재소자들의 이주, 19세기중반 부두노동자들의 삶, 19세기 후반 흉악범죄와 사법시스템 등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홍보 프로그램을 물론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이드 파크 막사 박물관에서는 19세기 초반 식민지 개척시대 재소자들의 삶과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호주로 이주하여온 미혼여성들의 이야기를 전시패널, 건축모형, 영상자료, 관련 소품 등을 활용하여 방문객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전시·홍보 프로그램 이외에도 건축물에 중첩되어 남아있는 시대별 흔적을 다양한 색깔로 벽면에 남겨 놓음으로써 막사 건물에 쌓여 있는 역사적 층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19세기중반 부두 노동자를 위한 연립주택으로 사용되었던 수산나 플레이스 박물관에서는 당시 부두 노동자 자녀들의 하루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9세기후반 재판소와 해양경찰서로 활용되었던 사법 및 경찰박물관에서도 1920년대 경찰관의 복장을 입어 보거나 판사·변호사·피고인이 되어 당시의 재판과정을 몸소 체험하는 모의재판 프로그램, 유치장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연구자 촬영
역사적 층위를 벽면에 표시
(하이드 파크 막사 박물관)



출처: sydneylivingmuseums.com
1920년대 복장 체험 프로그램
(사법 및 경찰박물관)

가족단위 방문이 많은 시드니 교외에 위치한 6개 주택(보클루즈 하우스, 엘리자베스 베이 주택, 엘리자베스 농장, 메루갈, 로즈 시들러 주택, 로즈힐 주택과 농장)의 경우, 당시 주택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도록 건축물의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 정원 등을 과거의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한편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소품도 함께 전시하였다. 엘리자베스 베이 주택에서는 19세기 부유한 상류층이 꾸민 화려한 인테리어와 가구, 생활물품들을 고스란히 전시하고 있으며, 항구를 조망하기 위하여 만든 그로토(grotto)를 복원하여 방문객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주택의 내력을 알려주는 전시·홍보 프로그램이외에도 주택이 지어졌을 당시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농장에서는 초기개척시대 농장의 하인이 되어 세탁물을 직접 세탁해보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클루즈 주택에서는 부엌공간 뒤편에 조성되어 있던 농장을 활용하여 어린이 대상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출처: 연구자 촬영
19세기 부유한 상류층의 도서관을 재현
(엘리자베스 베이 주택)



출처: sydneylivingmuseums.com
농장체험 프로그램
(엘리자베스 농장)

이와 더불어 건축물의 특이한 이력과 거주하였던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호주의 시골에 모더니즘 건축을 전파한 호주 건축가 해리 시들러(Harry Seidler)가 자신의 부모를 위해 설계한 로즈 시들러 하우스에서는 1950년대 모던한 부엌의 모습과 당시의 음식을 소개하는 전시회 '로즈 시들러 하우스에서 먹는 당신의 역사(Eat your history at Rose Seidler House)'를 개최하였고, 1880년대 지어진 이후 4대에 걸쳐 여성이 주인으로 거주하였던 메루갈

에서는 매년 ‘메루갈 국제 여성의 날 시상식(International women’s day awards at Meroogal)’을 개최하고 있다.



출처: sydneylivingmuseums.com
 ‘로즈 시들러 하우스에서 먹는 당신의 역사’
 (로즈 시들러 하우스)



출처: sydneylivingmuseums.com
 2018년 메루갈 국제 여성의 날 시상식
 (메루갈)

시드니 도심부와 교외에 산재하여 있는 10개의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박물관의 입지특성에 따라 개관 일시를 조정하고 있다. 접근성이 좋은 시드니 도심부에 위치하여 관광객 또는 학생들의 방문이 용이한 공공시설의 경우 주로 평일에 운영되고 있는 반면 접근성이 도심부에 비하여 떨어지는 교외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가족단위 방문이 용이한 주말에 개관하고 있다. 한편, 방문객에 의한 시설물의 훼손이나 전시물품의 도난 등이 발생하기 쉬운 수잔나 플레이스 하우스나 교외 주택의 경우, 해설사의 인솔 아래 제한적으로 관람이 진행되기도 한다.

시드니 리빙 뮤지엄의 시설별 위치 및 개관일

구분	시설명	지역	개관일	구분	시설명	지역	개관일
본부	조폐국	시드니	월-금	주택	보클루즈 하우스	보클루즈	수·일
	캐롤라인 심슨 도서관 및 연구소	시드니	화-금		엘리자베스 베이 주택	엘리자베스 베이	금·일
공공 시설	시드니 박물관	시드니	전일		로즈힐 주택과 농장	로즈힐	수·일
	사법 및 경찰박물관	시드니	토·일		엘리자베스 농장	로즈힐	수·일
	하이드 파크 막사 박물관	시드니	전일		메루갈	노우라	토
	수잔나 플레이스 박물관	시드니	전일		로즈 시들러 주택	와롱가	일

시드니 리빙 뮤지엄 본부와 캐롤라인 심슨 도서관 및 연구소가 있는 조폐국 건물과 10개의 박물관을 통합적으로 운영·연계하기 위하여 시드니 뮤지엄 패스(Sydney Museum Pass)를 판매하고 있다. 1달 동안 시드니 리빙 뮤지엄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시드니 뮤지엄 패스는 방문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접근성이 떨어지는 교외에 입지한 문화유산까지도 방문객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결혼식이나 파티 개최, 영화·사진촬영 등을 위한 공간으로 문

화유산을 대여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호주 외에도 영미권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리빙 히스토리 뮤지엄(Living History Museum)은 과거의 역사를 현재에 재현하여 방문객들이 당시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반면에 역사의 완전성·진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리빙 히스토리 뮤지엄에 대해 반대하는 많은 학자들이 과거의 정신상태를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빙 히스토리 뮤지엄은 본질적으로 부정확하다고 주장한다.

시드니 리빙 뮤지엄은 이러한 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캐롤라인 심슨 도서관 및 연구소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소장, 충분한 역사적 고증과 연구를 바탕으로 개개의 박물관에 대한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시드니 리빙 뮤지엄의 프로그램은 단지 과거를 재현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현재의 삶을 반추할 있도록 다양한 전시·홍보 프로그램을 물론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박신의, 2017, “리빙 뮤지엄의 ‘역사 살리기’를 위한 장치와 요소 - 시드니 하이드 파크 막사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논문집』, 통권57호

조은빈, 2018, “리빙 뮤지엄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사례연구 - 서울시 소재 역사가옥박물관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국외문헌]

Historic Houses Trust, 2000, 『Elizabeth Bay House, A history & Guide』

Historic Houses Trust, 2006, 『Vaucluse House, A history & Guide』

Sydney Living Museum, 2015, “SLM Aboriginal action plan 2016-2018”

Sydney Living Museum, 2016, “Strategic Plan 2017-2022”

[기타]

Sydney Living Museum 안내서, “Sydney Museums Pass”

Sydney Living Museum 안내서, “Justice & Police Museum Visitor Guide”

Sydney Living Museum 안내서, “Hyde Park Barrack Museum Visitor Guide”

Sydney Living Museum 안내서, “Sydney Museum Visitor Guide”

Sydney Living Museum 안내서, “Vaucluse House Visitor Guide”

Sydney Living Museum 안내서, “Elizabeth bay House Visitor Guide”

Sydney Living Museum 안내서, “The Groto and the Garden of Elizabeth Bay House”

[인터넷 홈페이지]

<https://sydneylivingmuseums.com.au/>

시드니 리빙 뮤지엄 홈페이지

<https://legislation.nsw.gov.au/>

뉴사우스웨일스 법령 홈페이지

<https://www.environment.nsw.gov.au/>

뉴사우스웨일스 환경문화성 홈페이지

<https://en.wikipedi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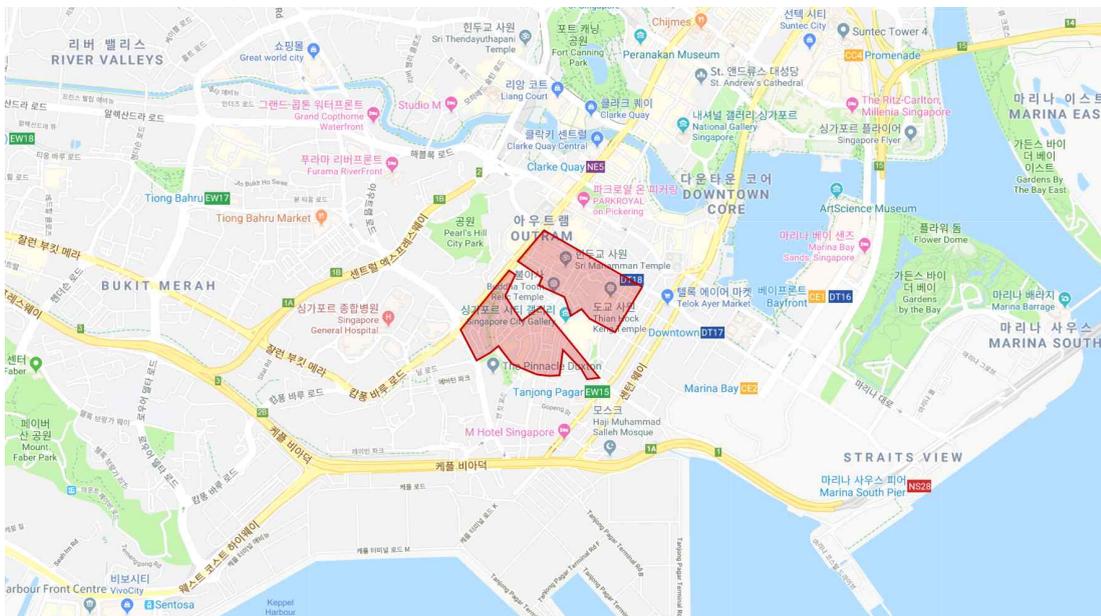
위키피디아 홈페이지

해외출장(싱가포르)보고서

부서 :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책임 및 자료제공 : 민현석
작성일 : 2018년 12월 일
게시요망일 : 2019년 월 일

싱가포르 차이나타운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와 활성화

싱가포르의 차이나타운 역사지구는 18세기 초반 영국 정부가 싱가포르강 남쪽에 위치한 이곳에 중국인 이민자들을 위한 주거지를 개발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차이나타운 역사지구는 인구의 70%가 중국계인 싱가포르에서 그들의 전통과 문화가 제일 잘 남아있는 지역으로 설날 등의 명절 때가 되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양한 전통행사를 즐기고 전통물품을 사기 위하여 방문하고 있다.



차이나타운 역사지구의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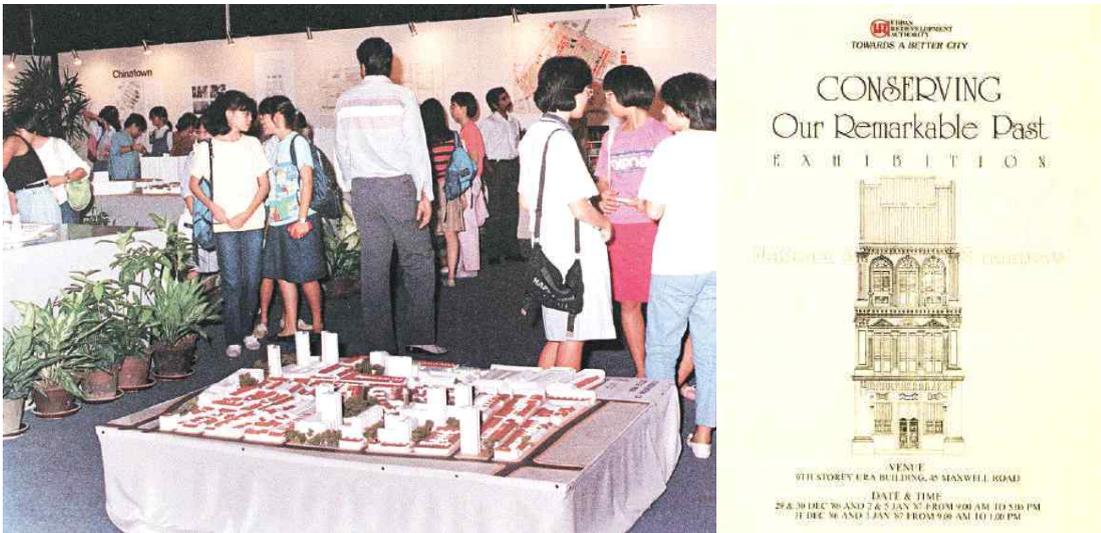
1820년대 처음으로 거주지가 형성된 이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차이나타운 또한 확장을 거듭하였고, 현재는 형성 시기에 따라 4개 구역, ①텔록 에어(Telok Ayer, 1820년대 형성), ②크레타 에어(Kreta Ayer; 1830년대 형성), ③부킷 파소(Bukit Pasoh; 1900년대 형성), ④탄중 파가(Tanjong Pagar; 1920년대 형성)으로 차이나타운 역사지구를 구분하고 있다.

차이나타운 역사지구의 건축물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 사이에 지어진 숭하우스(shophouse)가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3층 높이로 지어진 솽하우스는 저층부의 상업공간과 상층부의 주거 또는 창고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에는 상층부의 경우, 건축사 사무소, 광고회사, 디자인 스튜디오 등의 소규모 업무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세장형 필지에 서로 벽을 맞대고 지어진 솽하우스는 차이나타운 역사지구의 독특한 상업 골목길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①.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한 시민인식 개선노력

1980년대 초, 싱가포르에서는 관광산업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차이나타운을 포함한 구도심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도시개발청에서는 도심에 위치한 역사자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1983년부터 86년까지 4년간 역사적 건축물과 주변 도시조직에 대한 상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86년 차이나타운, 리틀 인디아(Little India), 캄퐁 글램(Kampong Glam)을 역사지구로 지정하는 보전계획안을 발표하였고, 1987년에는 "의미있는 과거의 보전(Conserving Our Remarkable Past)"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열어 역사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고조시켰다.



출처: Louisa-May Khoo and Jason Boh, 2018, 「Engaging Well, Forging Bonds: The Community as Stakeholders in Urban Development」, Centre for LivableCities, pp. 30-31.

“의미있는 과거의 보전” 전시회 전경(좌) 및 포스터(우)

이와 동시에 도시개발청에서는 차이나타운 역사지구에 위치한 탄중 파가를 중심으로 솽하우스의 보전사업을 실시하였다. 먼저 총 220동의 공공소유 솽하우스 가운데 닐로드(Neil Road)에 면한 32동을 수리·복원하고 이를 민간에 다시 임대하였다. 이후 공공소유의 솽하우스를 민간에 매각하고 소유주가 직접 건축물을 수리·복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자발적인 보전 참여를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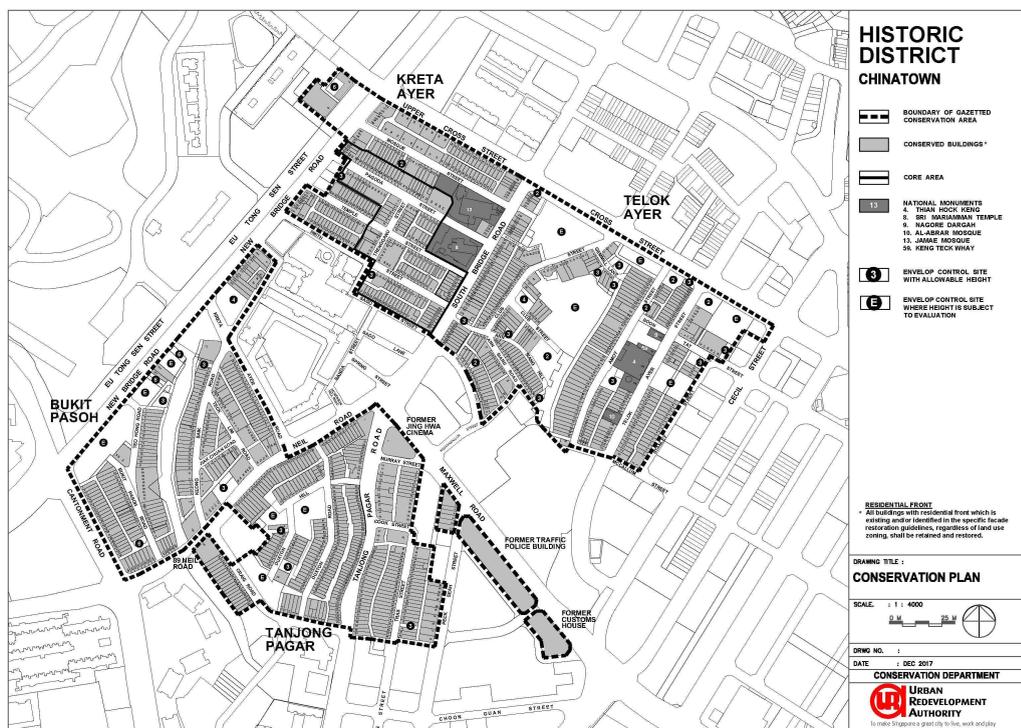
공공의 선도사업과 민간의 참여유도라는 단계적 접근방식으로 추진되었던 탄중 파가 솽하우스 보전사업을 통하여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리·복원으로 역사적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사후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보전활동을 촉진하였다. 탄중 파가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1990년 도시개발청은 솽하우스 보전사업을 크레타 에어 지역으로 확대하여 45동을 추가로 수리복원하고 임대하였다.

②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싱가포르 도시개발청(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은 차이나타운을 포함한 리틀인디아, 캄퐁글램 등 독특한 문화환경과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도시계획이라는 틀 속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지역을 역사지구(Historic District)로 지정하고 보전지침(Conservation Guidelines)에 따라 이곳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건축행위를 관리하고 있다. 1989년 처음 작성된 보전지침은 여건변화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변경해왔고, 가장 최근에는 2017년 12월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보전지침은 역사지구의 독특한 경관 보호를 위하여 역사보존정책의 핵심원칙인 3R원칙, ①최대한의 원형 유지(maximum retention), ②섬세한 복원(sensitive restoration), 그리고 ③조심스러운 수리(careful repair)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전대상 건축물과 주변 일반 건축물의 관리 및 설계지침, 옥외광고물 설치지침 등 세부보전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차이나타운 역사지구도 역사지구의 보호범위, 역사지구 내 산재하여 있는 국가 기념물(National Monument) 등 보호가 요구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한 기초정보 등을 도면에 표기하고 보전지침에 따라 보전·관리하고 있다.

특히, 차이나타운 역사지구의 중심가로인 파고다 스트리트(Pagoda Street)와 트렝가누 스트리트(Trengganu Street) 주변을 핵심지역(Core Area)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형태는 물론 용도까지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한편, 보호가 요구되는 주요 건축물 주변의 빈 필지와 일반 건축물의 경우, 신축 또는 재건축을 통해 지어지는 건축물이 차이나타운의 역사적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필지별로 높이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Dec 2017, 「Conservation Plan: Historic District Chinatown」.
차이나타운 역사지구의 보전계획

보전지침에서는 차이나타운 역사지구 내의 역사적 건축물인 솽하우스를 보호하기 위해 수리복원지침

(Restoration Guidelines)을 수립하여 소유주들이 이를 근거로 개별 건축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조심스럽고 섬세한 솜하우스의 수리복원을 통하여 건축물의 원형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10개의 건축요소에 대해 수리복원지침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10개의 건축요소로는 지붕의 구조 및 형태, 앞마당 및 뒷마당의 규모, 파사드 및 외벽의 외장재료, 문 및 창문의 규모와 위치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의 바닥, 계단, 천장, 굴뚝, 배관이 있다.

Figure 2 : Understanding The Shop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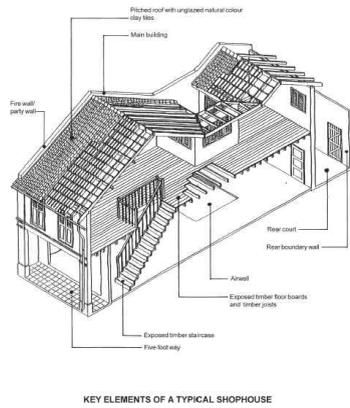


Figure 3 : Secondary Wind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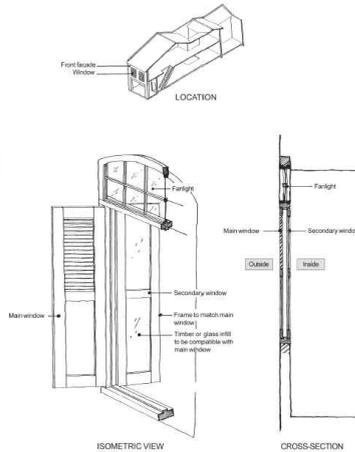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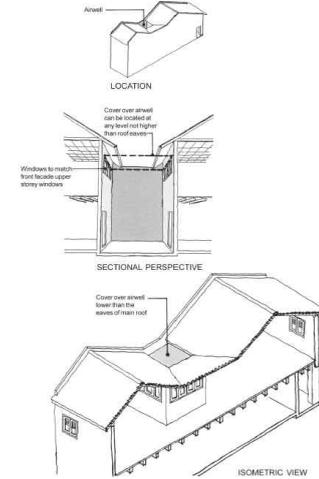


Figure 11 : Airwell



출처: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Dec 2017, 「Conservation Guidelines」.

솜하우스의 주요 건축요소(좌), 창문 및 중정에 관한 지침(중, 우)

차이나타운 역사지구에서는 개별 건축물의 수리복원 작업이 지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의 내용 및 범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먼저 지붕의 구조 및 형태, 문 및 창문의 규모와 위치 등 보전건축물의 주요요소를 수리복원하는 작업이 1, 2단계에 해당한다. 1, 2단계의 경우,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공인된 건축가(Qualified Person)가 수립한 작업계획을 도시개발청과 건설청(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완료된 후에는 계획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었는지 현장점검¹⁾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개별 타일 및 바닥 교체 등의 경미한 수리복원 작업은 3단계로 분류하며 서류 및 허가절차를 간소화²⁾하여 소유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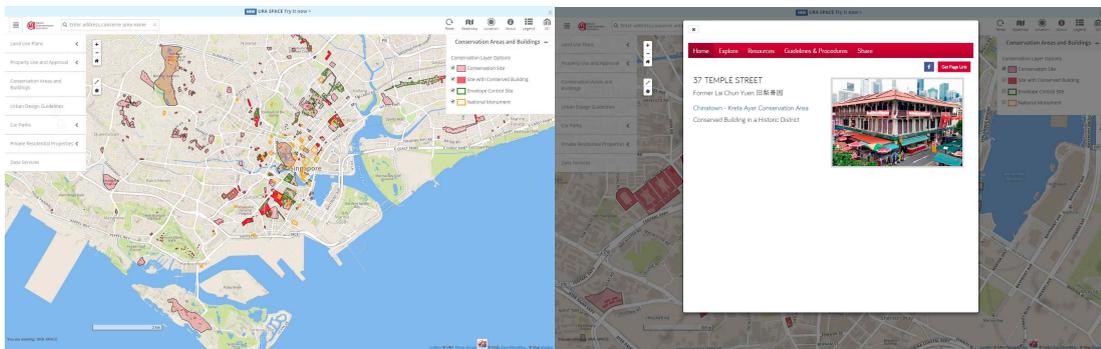
한편 과거부터 중국계 이민자들의 상업 중심지였던 차이나타운 역사 지구는 오늘날까지도 저층부에 다양한 상업시설과 음식점들이 입주하고 있어 고유한 상업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보전지침에서는 역사지구의 역사 문화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국전통문화와 관련된 용도(찻집, 종교용품판매, 전통약재상, 신발·마작·서예 등의 전통공방, 철학관 등)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는 한편 지구의 분위기를 해칠 위험이 있는 유흥시설, 안마시술소, 위락시설, 이류차 판매시설, 창고시설, 종교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으로의 용도변경을 불허하고 있다.

특히 지구 내에서 전통문화자산이 모여 있는 핵심지역에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 1) 확인작업이 끝난 건물에 대해서는 입주허가(Temporary Occupation Permit)와 완료 증명서(Certificate Statutory Completion)를 발급하여 주고 있다.
- 2) 3단계의 경우, 소유주가 직접 작업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완료된 후에도 사진 제출만으로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숍하우스를 음식점이나 호스텔, 주택 등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시개발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전지침에서 일반적으로 정하는 불허용도 이외에도 패스트푸드점, 슈퍼마켓, 건축자재 상점, 요양원, 업무시설의 입주 또한 금지하고 있다.

도시개발청에서는 세금 감면, 기술 자문, 기반시설 확충 등의 지원을 통해숍하우스를 소유한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역사건축물을 보전 및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보호가 요구되는 건축물의 경우, 용도변경 등의 이유로 건축물의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개발부담금³⁾을 면제하여주고 주차장 설치의무 또한 면제하거나 주차장이 없는 건물에 부과하는 주차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개별 건축물의 수리복원 작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등을 배포하고 관련부서에서는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역사보존포털(Conservation Portal)을 마련하여 토지소유자가 개별 필지별로 관련지침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처: <https://www.ura.gov.sg/maps/index.html?service=CONSERVATION>
 역사보존포털의 초기 화면(좌) 및 개별 필지별 화면(우)

이외에도 보행환경 개선사업 및 기반시설 관리사업 등을 통하여 차이나타운 역사지구 내에 산재하여 있는 공공공간의 물리적 환경도 유지·관리하고 있다.

③ 시민참여를 통한 역사문화환경 보호 및 활성화

1987년 설립된 시민단체인 싱가포르 문화유산협회(Singapore Heritage Society)는 차이나타운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간행물 출간, 전시 및 워크숍 개최, 도보 투어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1998년 싱가포르 관광청(Singapore Tourism Board)에서 대규모 극장 건립과 테마 거리 및 공원 조성 등을 포함한 차이나타운 재생계획을 발표하자 지역주민과 상인들은 차이나타운의 지나친 상업화와 테마파크화를 경계하였다. 이에 문화유산협회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우려를 전달하였다. 동시에 싱가포르 시민들과 차이나타운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온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조사 및 기록하여 이를 차이나타운 문화유산센터에서 전시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협회는 지역고유의 역사문화환경과 및 주민들의 집단기억을 고려한 재생사업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한편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상인들이 모여 조직한 차이나타운 상인회(Chinatown Business Association)를 중심으로 설날, 동지 등 주요 명절 때가 되면 다양한 전통·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지도 및 웹페이지 제작, 도보투어 등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차이나타운이 가진 다양한

3) 싱가포르에서는 도시계획법을 근거로 개발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 가치가 증가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역사문화자산을 방문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젊은 도시기획가들이 모여 설립한 어반 벤처스(Urban Ventures)가 매년 서너 차례 케옹 사익 로드(Keong Saik Road), 템플 스트리트(Temple Street)의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거리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축제기간에는 음식, 음악, 예술, 공예 4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요가 수행, 공예 체험, 콘서트, DJ파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출처: <https://www.urbanventures.co/>

어반 벤처스의 거리 축제 프로그램: 요가 수행(좌), 콘서트(중), 공예 체험(우)

도시개발청은 차이나타운 역사지구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 솽하우스 보전사업을 진행하여 역사적 건축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후 역사지구 지정과 보전지침의 수립을 통하여 차이나타운 역사지구의 독특한 문화환경과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솽하우스의 조심스럽고 섬세한 수리복원을 위하여 솽하우스의 건축요소별로 형태, 디자인, 위치, 재료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마련하고 수리복원계획에서부터 공사가 완료되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단계별 관리감독을 통하여 역사적 건축물의 원형이 수리복원지침에 따라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개발부담금 등의 세계감면혜택을 제공하고 공공공간과 기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개별 건축물 보전 및 활용을 촉진시켰다. 이에 힘입어 2017년까지 약 1,000여동의 솽하우스가 수리복원되었다.

차이나타운의 상인, 활동가 등이 모여 만든 민간단체들도 상업가로 고유의 역사적 특성을 유지하고 이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차이나타운과 지역주민들의 역사를 수집·기록하여 공유할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행사 및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도시개발청에서는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창출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전봉희·김지홍, 2007, “중국계 슨하우스와 비교를 통한 베트남 냐옹의 특수성 고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제23권 11호

[국외문헌]

Brenda S.A. Yeoh and Lily Kong, 2012, "Singapore's Chinatown: Nation building and heritage tourism in a multiracial city", 「Localities」, Vol.2.

Kwok Kian Woon, C.J. Wee Wan-Ling and Karen Chia, 2000, 「Rethinking Chinatown and heritage conservation in Singapore」. Singapore Heritage Society.

Lily Kong, 2011, "Sustainable Cultural Spaces in the Global City: Cultural Clusters in Heritage Sites, Hong Kong and Singapore", 「The New Blackwell Companion to the City」.

Lily Kong, 2011, 「Conserving The Past, Creating The Future: Chinatown」.

Louisa-May Khoo and Jason Boh, 2018, 「Engaging Well, Forging Bonds: The Community as Stakeholders in Urban Development」, Centre for LivableCities.

Michael Koh and Katyana Melic, 2017, 「A Historic Heart: How Heritage Districts Can

Make Cities More Liveable」, Centre for LivableCities.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2004, 「Shaping Singapore: a pictorial journey」.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2014, 「Chinatown Guide」.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Dec 2017, 「Conservation Guidelines」.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Dec 2017, 「Conservation Plan: Historic District Chinatown」.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ura.gov.sg/>

싱가포르 도시개발청 홈페이지

<http://www.singaporeheritage.org/>

싱가포르 문화유산협회 홈페이지

<https://www.urbanventures.co/>

어반벤처스 홈페이지

<http://www.chinatown.sg/>

차이나타운 상인회 홈페이지